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10. 6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투자유치기획과
담당	과장 정경원, 투자협력팀장 이종현, 담당 이명숙(032-453-7313)

잇단 금리 인상 타개책은?...재무건전성·유동성 확보해야

‘IFEZ 혁신성장 플랫폼’ 서 장근호 한국은행 인천본부 팀장 주제 강의
높은 관심 반영...셀트리온 등 많은 기업 관계자 참석

- 미국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김진용 청장과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‘최근 금리인상 배경과 경제적 영향, 기업의 대응 과제’를 주제로 ‘제7회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혁신성장 플랫폼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IFEZ 혁신성장 플랫폼은 입주기업과의 상생 발전 등을 위해 기업의 이슈화된 주제를 상생발전 토론회, 분야별 소규모 미팅, 세미나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다.
- 강사로 나선 장근호 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장은 “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.”며 “이에 대응한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 노력 등이 요구된다.”고 강조했다.
- 그는 이어 “글로벌 수요 둔화 및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

리스크 요인과 환율 상승에 대비한 외화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.”고 밝혔다.

- 행사에는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포스코건설, (주)나우시스템즈, 다이후쿠코리아(주), 경신흥딩스, 아이리스크리아 등 30여 개 기업 관계자와 한국은행 인천본부 김규수 본부장과 인천테크노파크,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초록우산어린이재단, 인천대 등 유관기관과 대학 관계자 등이 온·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최근 취임한 김진용 청장과의 상견례, 입주기업과의 대화 등도 있었다.
- 김진용 청장은 인사말에서 “세계적 이슈인 고금리, 인플레이션 문제를 입주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”며 “이번 행사가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 활동과 투자 활동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”고 밝혔다.